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작품 「사이」의 공간해석에 관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강 민 정

논문개요

예술의 관심의 대상은 인간이 사물의 중심이었던 과거의 예술적 성향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의 다양한 조형양식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물의 본성 그 자체만으로 구성되는 리얼리티를 추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존재하게 해주는 가장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예술세계를 구성하려는 조형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리얼리티를 찾으려는 노력은 실제로 체험하는 공간(real space)을 하나의 예술세계로 유도하여 공간이라는 화두를 현대미술에서의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켰다.

조각에서도 현대적 소재에 대한 표현양식의 변화와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공간개념이 크게 달라져왔다.

조각은 공간에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독자적인 예술영역으로 조각가에게 있어서 공간은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본인은 나무 물체에 본인에 의해 의도되어진 공간이 서로 소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성을 통하여 그 속의 보이지 않았던 사유의 공간이 존재하도록 유도하고, 물체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공간개념의 의미를 찾고 공간성을 통해 조형화를 연

구한 내용과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 2 장 본론에서는 본인의 작업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공간의 개념과 사이공간의 의미를 통하여 형태와 작품을 분석하였다.

제 3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과 작품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본인 작업의 나아갈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3
1) 공간의 개념	3
2) 사이공간의 의미	4
2. 작품의 형태분석 및 표현 방법	5
3. 작품 분석	8
III. 결론	20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1】 사이 1500x650x450 (mm)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9
- 【작품2】 사이 300x150x600 (mm)×2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12
- 【작품3】 사이 350x175x700 (mm)×5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14
- 【작품4】 사이 1500x550x250 (mm)×2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16
- 【작품5】 사이 5-1. 300x100x550,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18
- 5-2. 400x100x550
- 5-3. 520x100x550
- 5-4. 640x100x550
- 5-5. 760x100x550
- 5-6. 880x100x550
- 5-7. 1000x100x550
- 5-8. 1300x100x550

I. 서 론

공간예술은 공간적 동시성, 공존성을 가짐으로서 형성화되는 예술로 건축, 조소, 회화, 공예,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예술은 흔히 물적 자료나 수단에 의거해 공간내의 형태를 제작, 형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이 되므로 시각예술이라고도 한다. 특히 이때의 입체 작품들은 평면 작품들 보다 주변 공간을 절대적으로 포함하게 되므로, 공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1942년 메를로-퐁티(1908~1961)¹⁾의 공간에 대한 관점은 우리 인간의 신체 조직체와 연결 되어있다. 우리의 몸은 외적 세계의 인식과 우리의 내면세계의 인식의 표현이며, 또한 문화의 표현이기도 하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지각의 현상학>에서 ‘공간은 그 속에 물체들이 놓여지는 실재적이거나 혹은 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그로 인해 물건의 위치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공간이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작품 내에서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공간에 대한 더욱 심층화된 연구와 개념의 확장을 유도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간개념이 가지는 공간성을 재해석하여 작품화한 것을 정리 분석함에 연구 목적을 둔다.

이는 나무 물체(형상의 공간)에 사이공간(사유의 공간)을 만들어 서로 접

1) Maurice Merleau-Ponty (모리스 메를로-퐁티, 1908~1961),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문학과 지성사 p.371

촉하는 공간의 의미를 찾고, 형상과 빈공간 '사이(entre)'의 경계의 소멸을 통해 가시적인 것은 비가시적인 것으로, 비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으로의 무한한 전이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나무 물체에 비가시적인 공간이 공존함으로서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기하학적 형태로 조형화하여 그 관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조형화 한 본인의 작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1) 공간의 개념

공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현대조각의 공간개념을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개념의 확장에 이르게 했고, 동시에 공간의 개념은 세분화 경향을 띄게 된다.

조각이 추구하는 조형적 공간에는 형상의 공간과 가시적인 공간, 비가시적인 공간이 있으며 시각적 공간과 환경적 복합 공간 등으로 공간 개념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본인은 작품에서 공간을 사물이 차지하는 실제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간과 정신적인 사유의 장(場)인 개념적인 공간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이 두 공간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고 단지 다른 공간으로 정의되는 것일 뿐 대치되는 공간이 아님을 밝혀둔다.

실제의 물체, 즉 형상에 변화를 주어 비가시적인 공간을 시각화한 사이공간을 만들어 낸다.

내부적 공간으로 사이공간을 형성하여 그 틈을 통해 사고의 개념적 이동을 유도하여 사유의 공간과 소통함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였다. 즉, 보이지 않는 사이공간을 가시적인 사유의 공간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개념화하여 존재하게 하였다.

2) 사이공간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쉽게 주목한다.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은 형태는 물론, 그 움직임 하나를 감지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는 관계 외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고, 그곳에도 어떤 식으로든 공간이라는 세계가 존재한다.

본인은 사람과 사람, 혹은 대상과 대상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허락되며 유지하여 소통하고 관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 한문에서의 인간의 間(간)자로 같이 쓰여지는 인간(人間)과 공간(空間), 그 사이 간(間)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間(간)자를 통하여 보여지는 인간과 공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사이공간이라는 소통의 공간을 발견하게 하였다.

프랑스 철학자 말디네이(1912~)²⁾의 ‘사이’(entre)에 대한 서술에서

“사이’는 더 이상 양극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이는 모든 간격을 초월한다. 그리고 이 초월성은 ‘사이’에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에 의해 완성된다.(...) 사이에로의 전환-실증주의의 논리에 모순되는-은 양극의 교체, 즉 그들간의 상호적이고 완전한 대체와 관련된다. 형태의 생성의 모든 순간에 전진과 후퇴, 혹은 수축과 이완처럼 그들의 교체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된다.’ 라고 하였다.

위의 서술에서 보듯이 가시적인 공간과 비가시적인 공간은 서로 대립되는

2) 말디네이 (Henri Maldiney, 1912~), *Esquisse d'une phenomenologie*, Toulouse, PUM, 1996. p.214-215

공간이 아닌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본인은 본인의 사고와 행위가 담겨져 있는 사이공간을 사유의 공간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이 사유의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 형상의 부분을 자르고 봤다. 그 속에 다시 비가시적인 공간인 사이공간을 만들어내어 존재하게 함으로써 가시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2. 작품의 형태분석 및 표현 방법

본인 작품의 사이공간은 사물의 부분을 변형시키고, 사물의 형상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단면을 만드는 작업으로써 비가시적인 것이었지만 본인의 언어로 가시화 하였다.

여기에서 '사이'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공간이다.

둘째, 물체의 갈라진 틈이나 물체와 물체가 이룬 틈이다.

셋째, 한 때에서 다른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이(間)는 공간적인 맥락에서 간격(interval)을 의미하지만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공간 예술인 조각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사이공간은 실제 물체의 형상에 같이 존재하지만 사이공간은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의미만이 아닌, 같은 세계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 되어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공간은 창작 작품에서 주제와 소재로 많이 언급되어져 왔으며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공간보다는 무한대적이고 상상의 공간이 작품의 주제로 많이 표현

되었다.

공간 확장의 개념으로 유명한 폰타나(1899-1968)³⁾는 작품에 구멍이나 틈새를 내어 공간을 나타내었고 막스빌은⁴⁾ 연속이라는 관념으로 공간의 시각화를 위해 물질과 형태의 면으로 받아들여 추상화 시켰다.

본인도 공간에 대한 표현 방법을 추상 표현주의적 표현 양식으로부터 점차 비표현주의적이고 단순화시킨 기하학적 입체양식으로 형식을 전환시켜 이렇게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부분들의 생략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그 의미와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해 줄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를 취했다.

각 작품에서 나오는 작품들의 전체적인 구조는 간결하고 직선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의 본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태만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사용된 재료는 통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이다. 이러한 재료들은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가지는데 나무는 자연적이고 투명합성수지는 비자연적이다. 이는 성질이 다른 물질이지만, 인간에 의해 가공되지 않은 자연으로, 인간에 의해 가공된 물질로, 나무 물체와 사이공간처럼 서로에게 관계를 가지는 재료라 생각되었다.

나무에는 진이라는 액체를 담고 있다.

본인은 소나무 속에서 송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어

3) Lucio-Fontana (폰타나(1899-1951)) <공간주의 기술에 관한 선언>을 발표 [우리는 보치 오니가 이룩한 예술의 혁명보다 더욱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회화도 조각도 아닌 공간을 전파하는 형태, 색채, 음향 그 자체이다]라는 '공간 개념'을 1949년에 등장 시켰고 작품에 구멍이나 틈새를 내는 공간 개념의 시리즈 작품을 하였다.

유성웅 「세계 조각사」, 한국색채문화사. 1993 5. 추상과 공간의 확장. P.643-651

4) Max-Bill (막스빌 1908-) 바우하우스의 학생이었고 구축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며, '수학적 사고 방식'을 작품에서 의도하였다. 기하학을 모든 형태의 기본적 토대로 삼음. 로잘린 크라우스, 「현대 조각의 흐름」, 윤난지역, 분석적 공간 p.57-90

떠한 공간이 존재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속의 공간과 나무와의 사이공간이 존재함을 생각하여 이러한 나무의 성질은 본인의 작품의 주제를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주재료로 작품에 사용하게 되었다.

소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송진의 색은 투명한 노란빛을 가지고 있다.

노란빛은 기쁨과 활력의 색으로 상징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나무라는 형상의 내부의 공간에서 외부와 반응하여 서서히 스며 나오는 송진의 색감, 그대로를 재현했다.

노란빛은 기하학적인 형태가 가지는 간결하고 단순한 이미지의 형태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

작품의 사이공간에 사용된 노란빛은 노란색의 안료를 투명합성수지에 섞어 소나무가 담고 있는 자연의 색을 만들어 내어 투명한 빛을 바라는 송진의 물성을 대변하여 다시 나무와 하나의 존재를 이루게 했다.

본인이 나타낸 형상들은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이미지만을 형상화하여 극히 공간적인 특성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각 물질이 갖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표면처리를 삼가했다.

나무가 갖는 자연적 이미지는 가시적으로, 투명합성수지의 비자연적 이미지는 비가시적인 이미지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질적 이미지, 그러나 노란빛을 사용하여 조화를 주는 이미지는 작품의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의 일관된 면을 강조시켰고, 작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개념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3. 작품 분석

작품은 본인이 공간을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본인은 기하학적 원과 사각형을 중심으로 공간을 단순화된 비표현적 이미지로 함축시켜 공간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여 조형화 시키고자 하였다.

나의 작품 '사이공간'은 단지 두 개체 사이에 비어있는 휴지(休止)의 영역이라기 보다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관계이다.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소통'이라 한다면 사이는 곧 소통의 통로라고 할 수도 있다. 관람자와 나의 '사이(between)'는 관계이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단순히 물리적, 심리적 거리(interval)가 아니라 교류하는 장이 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작품1】 사이 1500x650x450 (mm)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1. 【작품 1】 사이

크 기 : 1500x650x450mm

재 료 :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제작년도 : 2003

제작방법 : 사각의 나무원목을 이용하여 그 위의 표면에 똑같은 깊이에서 출발하여 점차 얇게 끝나는 4개의 틈을 팠다. 그것의 처음과 끝의 깊이는 깊고 점차 얇아져 가는 서서히 기울어져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했다. 그 속에 투명합성수지의 액체를 고체화시킴에 있어 투명합성수지의 재료적 특성상 여러 차례 시간적 간격을 주며 안료와 혼합하여 주입 시켰다.

【작품 1】은 직사각형 입체 형태의 나무원목 속에 4개의 사이공간을 만들어 시작과 끝이 깊이가 다른 공간감을 그 속에 담아 동시에 사이공간이 위치해있는 나무 물체와 내부적 공간의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직사각형 입체 형태를 사용하여 규칙적 단순함을 느끼도록 하고 내부의 사이공간의 깊이에 차이를 둔 것은 사이공간이 단순히 사이에 있는 공간만이 아닌, 본인이 겪고 파는 등, 행위를 가하면서 본인의 사고가 담긴 사유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그 속의 재료는 투명합성수지로 안료를 섞어 나무 자체에 나오는 송진의 색과 같이 투명하지만 노란빛을 담아내고 있다. 이는 나무 물체의 한 공간 속의 또 다른 공간 또는 물질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노란빛은 기쁨과 활력의 색으로 상징되지만 나의 작품에서는 일반적인 의

미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한 물체의 내면적 공간의 존재 가능성을 표현 그것을 고체화 시켜 시각화함으로서 본인의 사이공간에 대한 의미를 보여준다. 그 속을 투명하게 하여 점차적으로 색의 농도가 짙어 짐으로서 사이공간의 공간감에 깊이를 더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사이공간이 존재함을 의식적으로 암시한다.



【작품2】 사이 300x150x600 (mm)×2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2. 【작품 2】 사이

크 기 : 300x150x600 mm (each)

재 료 :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제작년도 : 2003

제작방법 : 나무 원목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외형을 잡아 원통의 형태로 만들어, 완전한 원통 모양으로 위, 아래의 두께가 일정하도록 다듬었다. 원통을 세로로 반으로 쪼개어 반원통의 형태를 가지게 했고, 쪼갠 표면에 틈을 파내어 비워낸 다음 그 속에 투명 합성수지로 채웠다. 나무가 가진 나이트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표면을 사포로 곱게 정리하였다.

2개의 반원통의 나무를 서로 벽에 붙여 맞물려 놓아 벽면의 꺾어짐을 이용한 공간 구성으로 조형 효과를 높였다.

나무 표면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고 나무 기둥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통 모양으로 다듬어 기하학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무의미한 부분들의 생략으로 단순화한 기하학적인 형태는 작품의 의미와 생각을 좀더 명료하게 관람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 한다.

나무 원통을 세로로 잘라내어 그 속의 공간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그 속을 파낸 홈에 투명합성수지로 채움으로서 나무의 내면에 송진이 존재함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공간 속의 공간이 존재함을 확인시켜준다.

그 속의 재료인 투명합성수지에 대한 설명은 【작품 1】 과 의미가 같고 계속해서 소개될 다음 작품에서도 그 내용이 같아서 참고하길 바란다.



【작품3】 사이 350x175x700 (mm)×5 나무, 투명 합성수지, 안료

3. 【작품 3】 사이

크 기 : 1500x550x250mm (each)

재 료 :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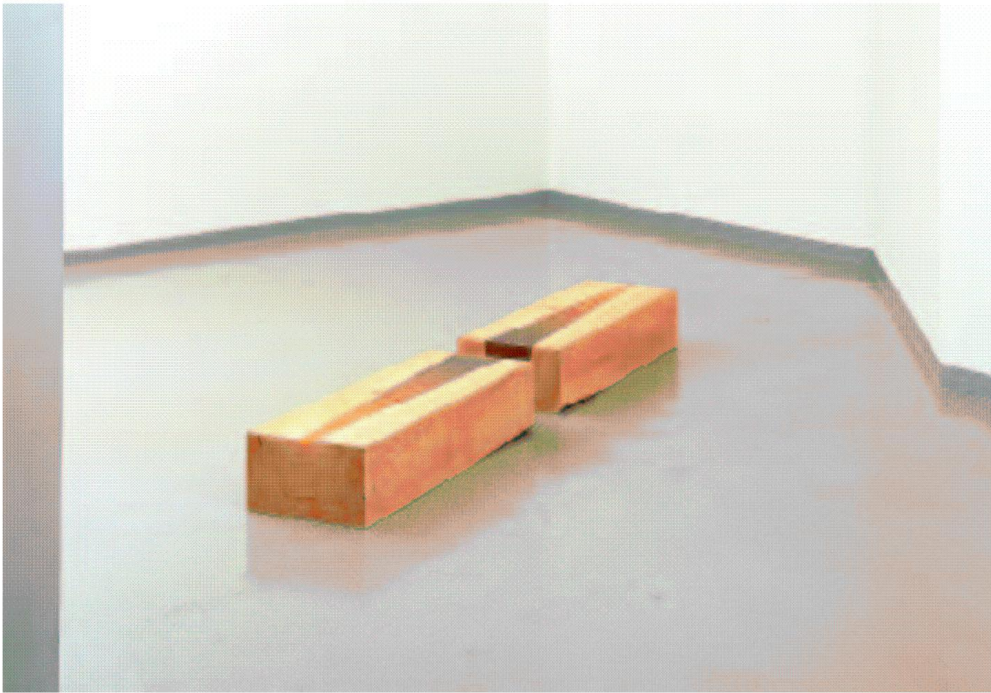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03

제작방법 : 【작품 1】 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각각의 기하학적인 반원통은 개별적인 의미들의 작품일 수 있지만, 각각의 의미들이 모여 다시 원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진 작품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원을 이루면서 반원통의 나무이지만, 완전한 나무의 형상을 의도하여 설치한 작품으로 작품 속의 사이공간들이 시각적으로는 비어있지만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고자 했다.

반원통의 둥근 면들의 이미지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서 정적인 공간의 움직임 없는 율동감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관람자들로 하여금 그 속의 공간들이 하나됨을 전달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공간의 개념을 새로이 인식하게 해준다.



【작품4】 사이 1500x550x250 (mm)×2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4. 【작품 4】 사이

크 기 : 350x175x700mm (each)

재 료 :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제작년도 : 2003

제작방법 : 【작품 4】는 두 개의 직사각형 입체 형태의 나무를 제재하여 그 속에 깊이 감을 더 줄 수 있게 높낮이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해서 틈을 뚫고, 각각의 작품에 똑같은 깊이와 폭을 일정하게 두어 대칭을 이루게 했다. 그 속은 역시 투명합성수지로 채웠고 그 속의 깊이 감을 전달하기 위해 색채가 사용되었다.

같은 형상의 작품을 대칭적으로 나란히 놓혀 놓아 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두 작품의 시작과 시작의 부분에 40cm의 공간을 띄어 놓으면서 두 작품이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됨을 나타낸다.

두 작품 사이의 띄어 놓은 공간은 본인작품의 공간개념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의 나무 물체와 사이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서로 소통하고, 사이공간에 깊이 감을 주어 사유의 의미를 가진 두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사이공간으로 비어있는 공간에서도 서로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려했다.

40cm의 비워둔 공간은 두 작품이 놓여짐으로서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사유의 공간으로 소통되어져 채워진 공간이고, 실제 관람자는 작품 속에서 본인에 의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투명한 사이공간의 형상을 보면서 다시 그 비워둔 공간이 사이공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는 결국 본인의 사이공간은 실제의 물체의 형상에 같이 존재하지만 사이공간은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의미만이 아닌, 같은 세계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5】 사이 300x100x550, 400x100x550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520x100x550, 640x100x550,
760x100x550, 880x100x550,
1000x100x550, 1300x100x550(mm)**

5. 【작품 5~】 사이

크 기 : 300x100x550, 400x100x550, 520x100x550, 640x100x550,
760x100x550, 880x100x550, 1000x100x550, 1300x100x550(mm)

재 료 : 나무, 투명합성수지, 안료

제작년도 : 2003

제작방법 : 가늘고 긴 직사각형의 각목을 8개의 각각 다른 크기로 잘라
일정한 크기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속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깊이를 주며 팠다. 그 속에는 다시 합성수지를 부어 굳혀서
직사각형의 평편한 면을 만들었다.

사각형의 입방체와 반복 연속 배열 방법은 미니멀 작가들의 작품에 있어
주류를 이루는데 본인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들 또한 대부분 단순한 직육면
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직사각형의 세로로 배열한 작품들은 본인이 공간개
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벽면에 다양한 이미지로 공간 구성을 한 것이다.

【작품 5~】는 공간 속에 나무 물체와 사이공간을 스케치 한 것으로 공
간개념의 확장을 보여 준다. 이것의 설치하는 작가의 공간에 대한 시각으로
본인의 감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각각의 작품은 개별적인 작품이지만, 공간
의 설치개념에 의해 한 작품으로 설명된다.

Ⅲ. 결 론

공간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되고 발전되어 왔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형태의 공간에 길들여져 있으며 본인은 이러한 공간을 작품표현의 주제로 삼았다.

본 논문은 물체와 사이공간의 관계에 따른 공간성의 확립과 공간구조를 조형화 하기 위해 비표현주의적 양식으로 표현한 본인 작품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조형 의도는 현실 공간 속에서 개개인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유 공간을 실제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본인의 사이공간은 실제의 물체에 같이 존재하면서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이공간은 가시적이면서 비가시적인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본인의 작품을 통해 사이공간은 같은 세계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되어 관계를 가지고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장된 공간의 해석으로 사이공간은 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그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결국 내가 놓여진 위치에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위치하는 나, 그 안의 사유하는 나로 재인식 해볼 수 있었다.

앞으로 본인은 공간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게 공간을 해석하고, 공간을 통한 또 다른 조형 세계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로잘린 크라우스, <현대 조각의 흐름>, 윤난지역, 도서출현 예경, 1997.
- 말디네이 (Henri Maldiney, 1912~), *Esquisse d'une phenomenologie*
Toulouse, PUM, 1996. p.214-215
-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역, 문학과 지성사. 2002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도서출판 푸른 숲, 1998.
- 안연희, <현대 미술 사전>, 미진사, 1999.
- 임석제,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2000.
- 유성웅, <세계 조각사>, 한국색채문화사. 1993.
- 최병상, <조형>, 창미서관, 1978.<미술대사전>, 도서출판, 송례문, 1994.
- <미술대사전>, 도서출판, 송례문, 1994.

ABSTRACT

The Study about Plasticity for the Concept of the Space

- Centering around My Work -

Kang, Min Jeong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the variable plastic mode of the modern art comes, the concern of the art has moved from the past inclination focusing on a human being and the art has been tried to seek true reality to be composed of only the real nature of thing, itself. In accordance with this, art developed the new plastic art viewpoint to try to constitute art world only with the most minimum element to enable one phenomenon to exist. Effort to try to find this reality embossed the topic to be space as the important subject of modern fine art, presenting the real space as on art world.

As the change in the style of the expression about the modern subject matter and new material appear, the concept of the space has changed a great deal.

As sculpture is the original domain to create one new space in

space, space in sculptor has been regarded as deep concern as the product of will to try to do plastic art.

This researcher would like to induce the unknown space of the speculatio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wood and the intended space and mak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and space.

This thesis is composed of 3 chapters totally.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this researcher presented about the form of the study, the scope as well as content with the concept of the space.

In the main discourse of chapter 2, this researcher depicted the process, manipulation and the basis of formation in the category of my works and explained the concept of the space and the meaning of between space.

In conclusion of chapter 3, this researcher arranged the contents and work this thesis generally and presented the direction that my work will have to advance and the possibility after that.